

거시에서 미시로의 발산: 8월 21일 극단적 디커플링의 해부

글로벌 금리 쇼크와 위험 회피 심리 속, 자본은 어디로 이동했는가?

KOSPI

6,912.95

+60.37pt (+0.88%)

6900대 안착 / 외인·기관 쌍끌이 순매수

KOSDAQ

801.94

-38.95pt (-4.63%)

4%대 급락 / 개인 267만 주 순매도

[MARKET WHISPERS]

코스피, 삼전·닉스
주주환원 기대에
6900선 회복

美 국채금리 반등에
뉴욕증시 휘청...
나스닥 1%↓

국제유가 5일째 상승,
7월 생산자물가 상방
압력 우려

8월 21일의 극단적 디커플링: 무엇이 두 시장을 갈랐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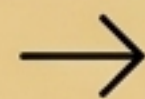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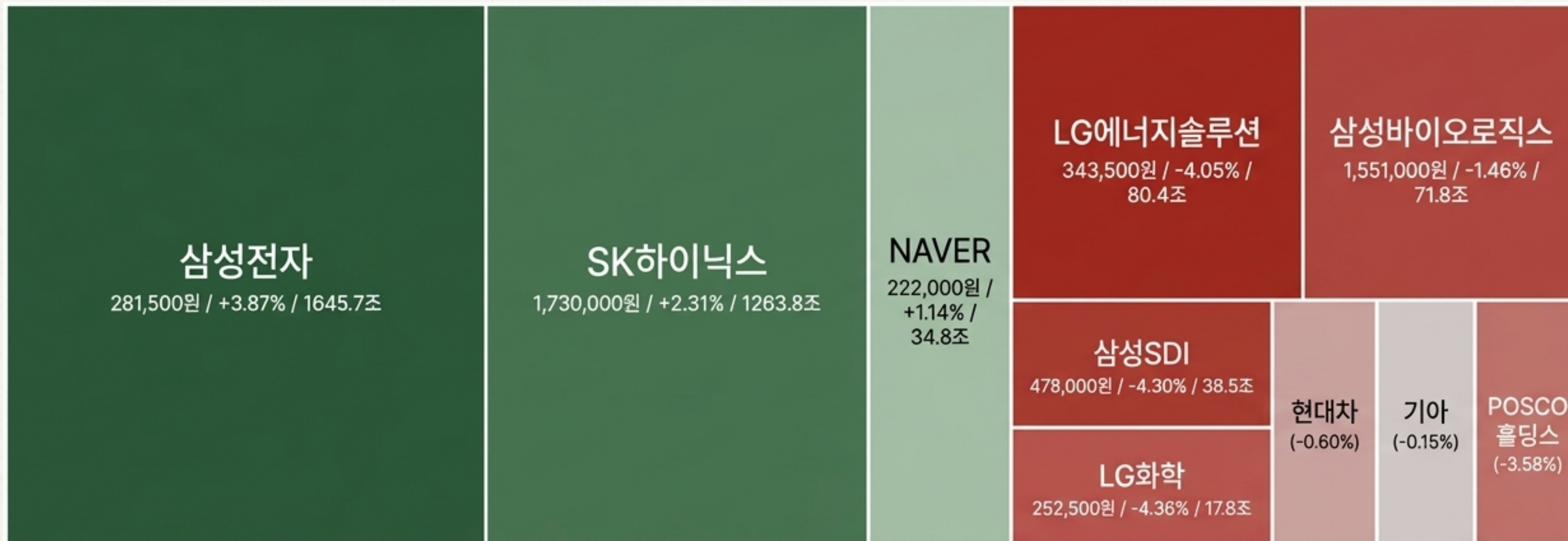
	KOSPI	KOSDAQ
지수 향방 Index Action	6,912.95 (+0.88%)	801.94 (-4.63%)
주도 매매 주체 Flows	외국인 156만 주, 기관 131만 주 순매수 (스마트 머니 유입)	개인 267만 주 대규모 순매도 (패닉 셀링)
핵심 동인 Key Drivers	대형 반도체(삼성·엔비디아) 주주환원 기대감 및 실적 방어력	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(+5bp)으로 인한 고밸류 기술주 타격
시장 심리 Sentiment	선택적 롱 (Selective Long)	위험 회피 (Risk-Off)

[MARKET WHISPERS]

하루 1.7조 샀지만...외국인,
올해 한국주식 195조원
팔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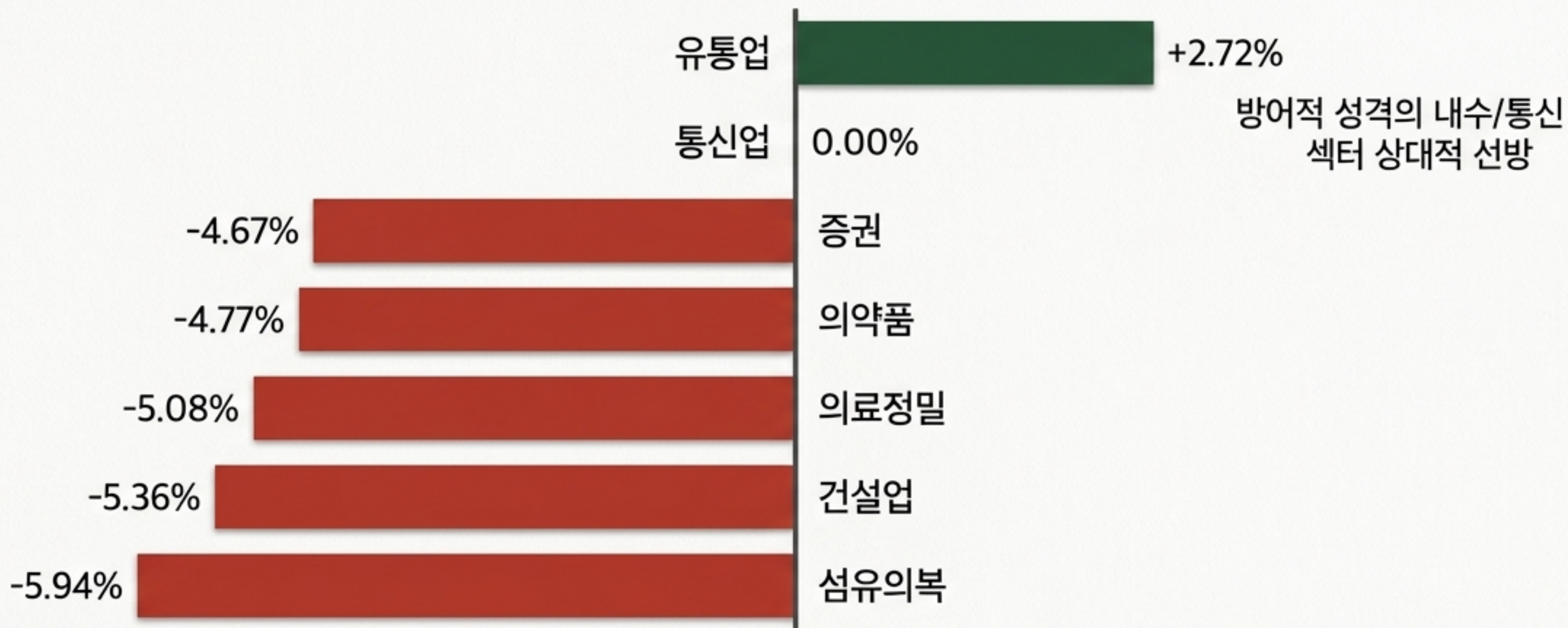
(외국인의 선택적 귀환 하이라이트)

시가총액 상위 종목 자금 이동: 반도체의 독주와 2차전지의 소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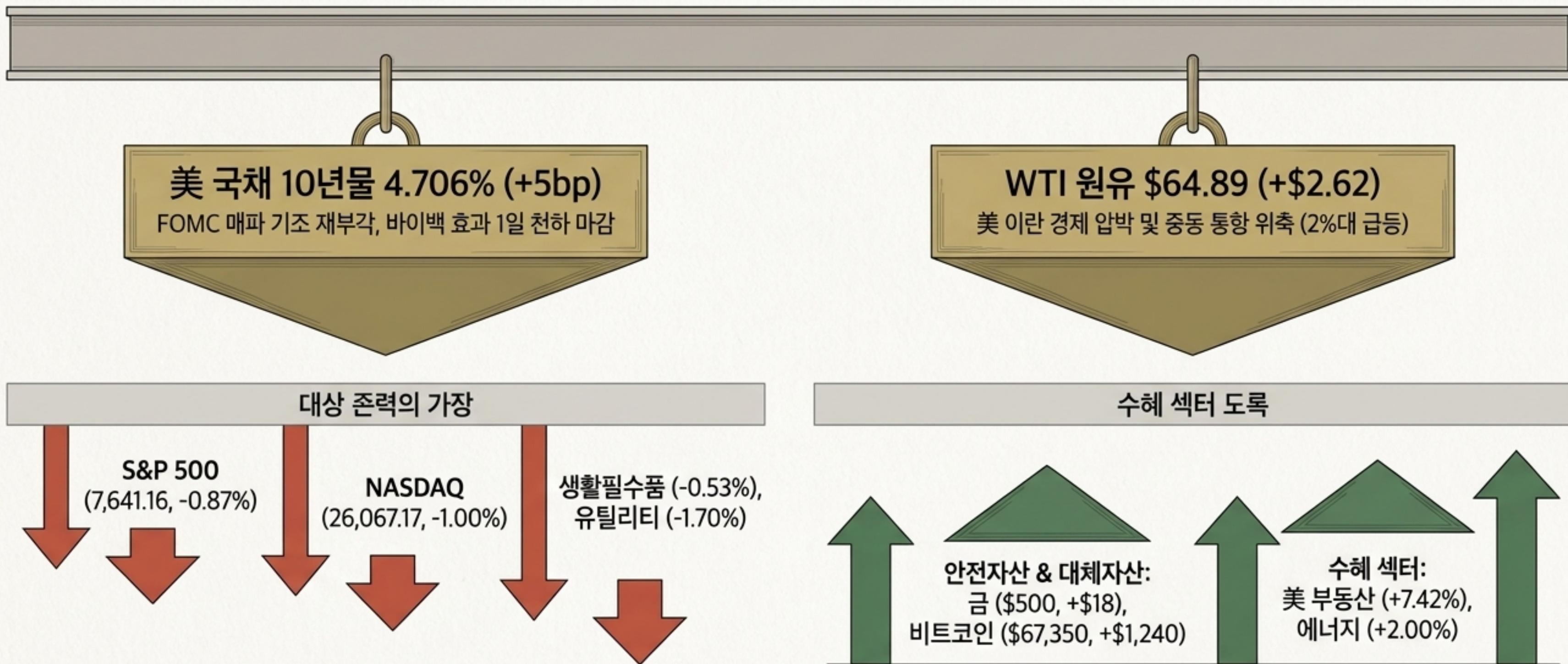
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 속, 주주환원 쉴드(Shield)를 장착한 초대형 반도체 2사로 스마트 머니 쏠림 심화

섹터별 투쟁 (Tug-of-War): 철저히 소외된 경기 민감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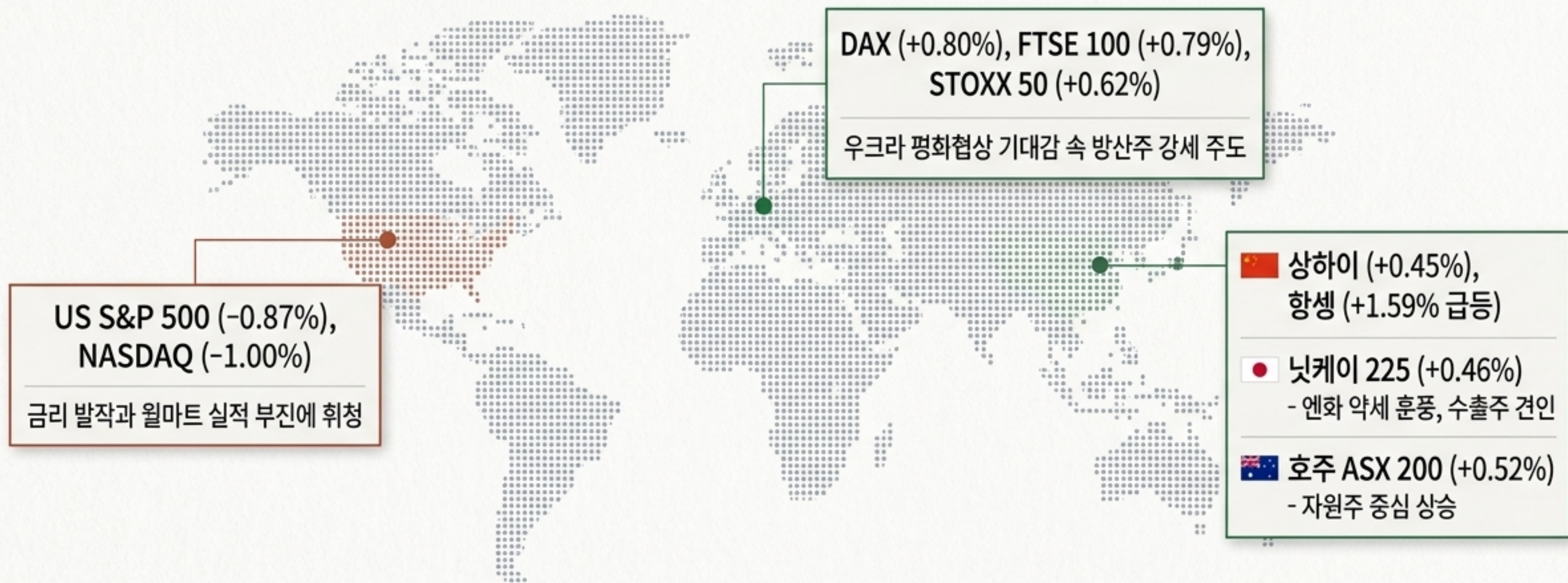


하락장 속 유통업만 2.72% 나홀로 상승. 반면 금리 상승에 취약한 건설, 제약/바이오(의약품), 그리고 실물 경기와 밀접한 섬유의복 섹터는 5%대 치명타를 입으며 투심 악화를 그대로 반영함.

거시 중력 모델 (The Macro Gravity Model): 시장을 짓누르는 FICC의 무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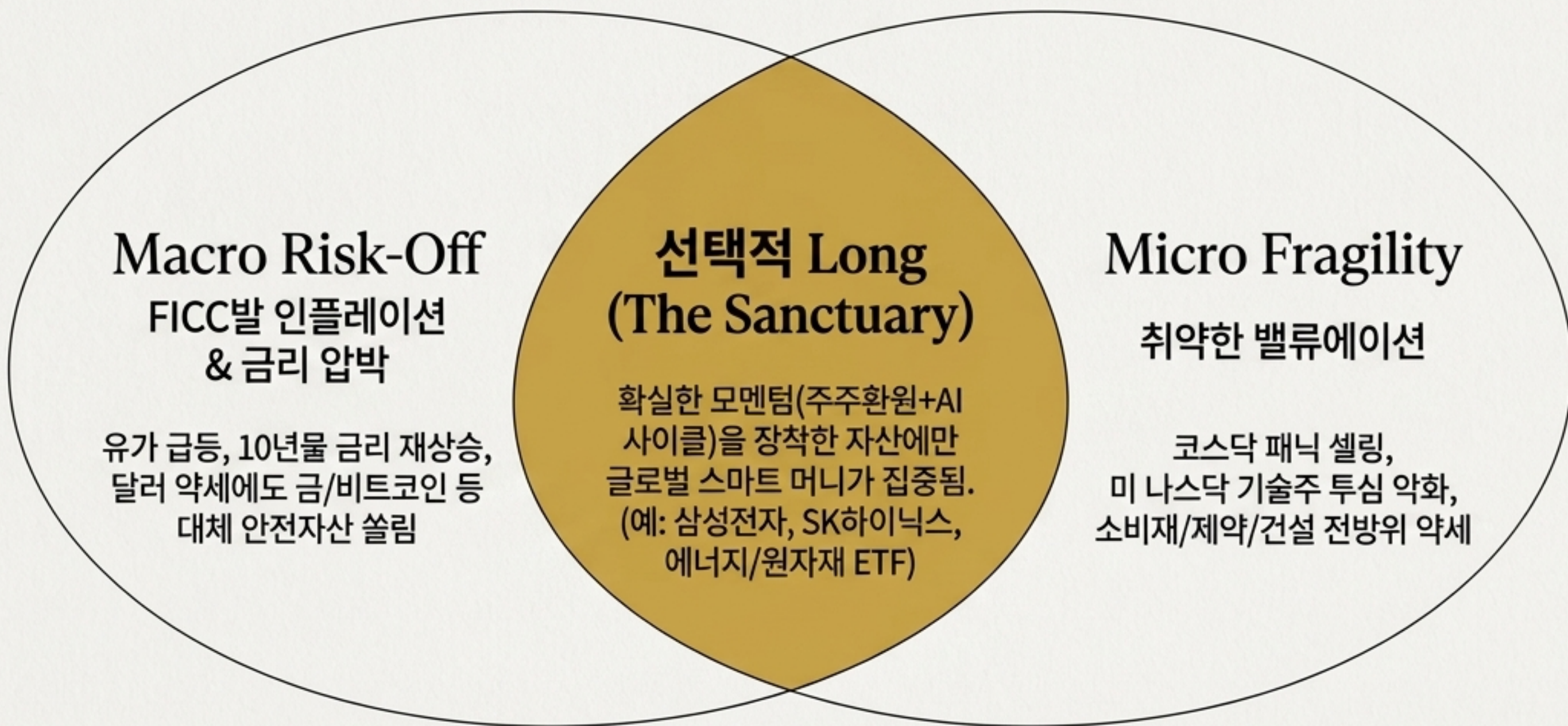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맵핑: 진원지(美)와 분리된 아시아·유럽의 내성



미국 국채 금리 쇼크가 나스닥을 직격했으나, 아시아와 유럽은 각자의 로컬 모멘텀(방산, 엔저, 자원)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디커플링 양상 전개.

신서시스 (Synthesis): Risk-Off 환경 속 고립된 '성역(Sanctuary)' 찾기



전면적인 상승장이 아닌, 철저히 '명분'이 있는 자산으로만
자본이 대피하는 초극단적 종목 장세의 도래.

전략적 전방 주시 (Foresight): 다가오는 변곡점과 4대 대응 액션

[방어]

단기 매도 & 리스크 관리

미국 금리 급등발
코스피·코스닥 변동성 확대.
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
위주 비중 축소 권장.

[공격]

주주환원 롱(Long) 포지션

외인/기관의 수급이 증명된
코스피 대형주(삼성,
엔비디아 관련주)를 방어적
롱 포지션으로 검토.

[헷지]

인플레이션/안전자산 헷징

중동 리스크발 원유 강세 및
금·비트코인 랠리 지속.
에너지·원자재 ETF
포트폴리오 편입 고려.

[대비]

스톱로스(Stop-loss) 철저

8/26 NVDA 실적 발표 전후
나스닥의 극심한 변동성 예상.
반도체·AI 관련 종목에 대한
엄격한 스톱로스 설정 필수.

The Volatility Timeline

8/21 (Today)

8/26 (수) - 🇺🇸 NVDA(NVIDIA) 실적 발표